

# 한옥의 건강특성과 요소에 대한 언론의 보도연구\*

## - 1960년 이후 4대 일간지 기사 내용분석 -

이 민 아(군산대학교 주거 및 실내계획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종합일간지의 신문기사에 나타난 한옥의 건강특성과 요소에 대한 보도경향을 분석하여, 대중에게 인식되어 있는, 혹은 인식 가능한 한옥의 건강요소를 알아보고 향후 한옥을 기본개념으로 하는 건물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옥의 건강특성이란 한옥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특성을 말하며 건강요소는 건강특성을 가져오는 한옥의 공간구성 및 개념, 의장요소, 재료, 기능, 구조, 자연환경 및 마을 형태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위해 1960년 이전에 창간된 국내 종합 일간지 중 인터넷으로 기사수집이 가능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사의 검색을 위해 해당 신문의 검색사이트 (<http://db.chosun.com>, <http://pdf.joins.com>)와 한국언론진흥재단([www.kinds.or.kr](http://www.kinds.or.kr))의 검색시스템, 그리고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http://dna.naver.com/search/searchbydate.nhn>)를 이용하였다. ‘한옥’을 키워드로 하여 한옥의 건강특성을 설명하고 그 요소를 명시한 기사로 기간은 1960년 1월 1일에서 2010년 2월 28일로 하였다. 4개 일간지에서 한옥의 건강특성 관련 기사는 총 95건이 수집되었고,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의 건강특성 관련 기사는 유형별로 전문가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기사가 가장 많았고(31건), 다음으로 기획기사(19건), 전문가 및 기자의 칼럼(13건)과 해설(13건)기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80년대에는 전문가의 의견과 학술적 원리를 인용한 해설기사가 많았으나 90년대에는 전문가 인터뷰기사, 2000년 이후에는 거주자 인터뷰와 함께 기획기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기사의 중심테마별로 거주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20건), 다음으로 정보제공(18건), 각계의 의견(14건), 인물탐구(13건), 공간탐구(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사의 구성은 전문가 및 거주자, 기자의 의견(각각 39, 35, 10건)이나 학술적/실용적 정보(14건)를 제공함으로써 한옥의 건강특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었다.

셋째, 한옥의 건강특성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련 기사가 많았고(각각 64건, 63건), 사회적 건강은 2000년 이후에 12건이 집중되어 있었다. 한옥의 건강요소로는 공간과 구조, 재료를 언급한 기사가 42건, 그 다음으로 기능(36건), 자연환경(34건), 공간개념(25건), 창호(2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90년대에는 재료를 많이 언급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공간과 구조를 건강요소로 많이 언급하였다. 건강특성별로 정신적 건강에서는 한옥의 자연환경(27건)이 대표 요소로 언급되었고, 신체적 건강에서는 재료(34건)가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

넷째, 한옥의 건강요소별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은 주로 자연에너지, 즉, 온돌과 자연환기, 채광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고, 공간에서는 마당과 대청, 구조에서는 기둥과 보 등의 구조디테일과 천장구조, 긴 동선과 구조의 높낮이 등이 나타났다. 공간개념에서는 인체척도의 우수성과 표현의 소박함이, 재료에서는 흙과 나무, 종이 등이 대표적인 건강요소로 나타났다.

\* 이 발표는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의 일부입(2010-0017191)